



보도시점 2026. 6. 25.(목) 16:00 온라인·방송 2026. 6. 25.(목) 16:00

## 경찰청, 한국전력공사와 손잡고 경찰관서 에너지 절감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

- 전국 경찰관서 월별 전력 사용량 감축 관리체계 구축 및  
한국전력공사 에너지 효율화 사업 참여 등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한국전력공사(영업본부장 이정호)는 2026년 6월 25일(목)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한국전력 아트센터에서 ‘경찰청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경찰관서의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경찰청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 관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예산과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전력은 데이터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2,344개의 경찰관서 월별 전기 사용량 자료를 경찰청에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경찰청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활용해 경찰관서별 전년 대비 사용량 변화, 인원·면적 치안 수요 등 주요 기준별로 전력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력 절감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각 경찰관서의 노후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예정이다.

스마트 엘이디(LED) 조명, 고효율 변압기, 엘리베이터 회생제동장치 등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은 설비가 대상이며, 전력 절감량에 따라 공사비 일부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탄소배출 권장 감축률 17.4%('18년 배출량 대비)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경찰청 탄소중립 핵심과제 추진 전담반(TF)」을 발족하여 태양광 전력 설비 설치 예산 확보, 에너지 감축 우수자 포상, 절약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정호 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장은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자 국가 치안의 중추적 기관이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이 에너지 절감을 통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청과 안정적인 국가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뜻을 모으게 되어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                      |     |    |     |                |
|-------|----------------------|-----|----|-----|----------------|
| 담당 부서 |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br>경무담당관 | 책임자 | 총경 | 이강석 | (02-3150-2021) |
|       |                      | 담당자 | 경정 | 김영만 | (02-3150-2920) |